

4 뉴스

연구윤리 지침개정  
부정조사 절차강화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된다. 이는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내부 연구 부정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이번 개편으로 대학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학이 아닌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 개편은 2020년 대학의 ‘학술진흥법’ 개정으로 후속조치로 교육부는 이전까지 실효성이 부족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전까지 내용이 모호하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던 사항의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대상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던 점이 개선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전까지 내용이 모호하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던 사항의 개편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연구윤리 지침의 적용 대상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포함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장했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던 점이 개선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부정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구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인 우리대학에서만 내부적으로 검증했지만, 이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또한 부정 조사 절차를 보완해 부정 조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한이 없었던 부정 예비조사 종료일을 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예비조사 과정 중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는 피조사자의 보호 장치도 담겼다.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정 조사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견을 낼 우려가 있는 위원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기피신청권은 기존 제보자에게만 부여된 권리였지만, 개편으로 피조사자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조사기관이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두었다.

악의적 연구부정 제보도 방지하고자 익명 제보 요건을 강화하고자 자료 보완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으로 대학과 전문기관은, 부정 제보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제보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료 보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를 정식 제보로 처리하게끔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에 대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발령 즉시 시행돼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식이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경민 기자)

〈2021〉  
단체협약  
인사제도  
개편방점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지난 2월 18일 우리학교와 노동조합 간 2021학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노조와 대학 간 상호 합의 도출을 위한 추가 교섭 끝에 맺어졌다. 우리학교와 노조 양측 모두 건전한 노사 관계와 임단협 체결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 이룬 결과다. 본관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이 협약에는 총장을 포함한

학교 측 교섭위원단과 노조 측 교섭위원단이 참석했다.

2021학년도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 직원채용, 인사제도 개선이었다. 임금인상, 행정 공백에 따른 사무직 신입 직원 8급 채용 등 공정한 인사와 조직운영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2021년 7월 14일 이후 약 7개월 동안 임금, 채용, 인사, 평가 등을 포함한 20여 개의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총 6차례의 본교섭과 4차례의 실무교섭이 이루어졌다. 노동조합 측의 지속적인 요구안 제출 끝에 우리대학이 이를 수용하며 본 협약이 타결됐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별도 위원회가 개설된다. 합의안에는 인사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사고와 평가제도, 징계 사면제도,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의 현안을 논의하는 점이 포함됐다.

이번 임단협에는 이전과 다른

성과 중심 인사제도로의 개편안이 담겼다. 앞으로 직위와 상관없이 소속 팀원 전체에 대해 인사과 과평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팀, 실장의 평정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수시인사 제한을 명문화하고 징계 사면제도를 신설해 구성원에 대한 인사 공정성 확보와 동기부여 유인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승진, 승급 제한과 특례규칙 개정에 대한 방침이 포함됐다.

이번 협의의 결과에 대해 임경열 노동조합위원장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노사 간 조율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며 학교 측 교섭위원회에 감사를 전했다.

학교 측 대표위원인 한균태 총장은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로 상생하는 동지의식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협약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2022년 장학생 모집 공고

- 개요
- 1. 주관 단체 :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 2. 사업 명 : 작은 장학회 사업(제2기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 육성 사업)
  - 3. 선발인원 : 2명 내외
  - 4. 장 학 금 : 1,000,000원(개인별)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 5. 선발 및 진행절차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장학금 신청자격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재(전문대 포함. 휴학생 및 입학 예정자 포함).
  - 2. 인류의 평화나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나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 경험 이 있는 자(1가지 이상의 활동 경험).  
※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활동, 인권보호 활동, 교육·복지 봉사활동, 문화보급 활동, 이타적인 경제·산업활동,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한 활동 등
  - 3.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학습할 의욕이 있는 자  
※ 신청 시점에서 관련된 연구 실적이나 지식의 유무는 심사와 무관함. 의욕을 중심으로 심사됨.

신청문의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이메일: cipeace2050@gmail.com / 전화: 010-6244-3973